

기록을 통해 본 조선후기 骨窟石窟의 양상

손신영*

- I. 머리말
- II. 骨窟석굴에 대한 기록
- III. 骨窟석굴의 형태 추론
- IV. 맺음말

I. 머리말

경북 경주시 양북면의 골굴사는 <골굴사 마애여래좌상>(보물 581 호)과 선무도장으로 널리 알려진 곳이다. 현재 마애불과 석굴이 구성되어 있는 전면 암벽은 너비와 높이가 약 40m 이며 벼랑에 가까운 모습이다.(도 1) 이러한 암벽에 4개 층을 이루며 형성되어 있는 骨窟石窟¹⁾은 전면 쪽에만 12개의 굴실이 확인된 바 있다.²⁾ 골굴석굴은 바위 면을 파서 형성된 이른바 ‘암벽개착식 석굴’로, 전면에 목조건물이 부가되었던 양상이 여러 기록에 전하고 있다.

‘석굴사원’은 인도에서 처음 조성되어 중국을 거쳐 한반도에 유입된 것으로, 우리나라에서는 석굴암이 대표적이다. 석굴암은 돌을 쌓아 조성된 이른바 ‘축조식’으로, ‘암벽개착식’인 인도 및 중국의 석굴사원들과는 조성형식이 다르다. 따라서 ‘암벽개착식’인 골굴석굴은 석굴사원의 시원형식에 가까우므로 한국의 석굴사원 연구에 있어 필수적인 연구대상이다. 그러나 골굴사 및 골굴석굴의 창

* 한국미술사연구소 책임연구원

- 1) 이 글에서 골굴사는 寺名으로, ‘골굴석굴’은 암벽에 조성된 여러 석굴이라 정의한다. 아울러 ‘굴실’은 석굴의 전면에 木造가 부가되고 내부가 형성된 석굴이라 정의하겠다.
- 2) 문명대, 「한국석굴사원의 연구」 경북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1967. 이 논문은 골굴석굴에 대해 주목한 가장 이른 글로, 12개의 골굴석굴을 정시한의 『山中日記』와 비교하여 명칭을 살피는 한편, 석굴을 실측하여 크기와 구조를 밝혔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이후 골굴석굴의 실측과 학술조사에 대해서는 문명대, 「골굴사 석굴구조와 마애장육석가불좌상의 의의」 『정통 석굴사원 골굴사의 문화와 석굴구조』(사단법인 한국미술사연구소·골굴사), 2016, pp.25~43 참조.



도1. 골굴석굴 전경

되어 있는 현재 양상과는 차이가 크다. 이처럼 조성 당시부터 조선후기에 이르기까지의 양상을 알 수 없는 상황이지만 골굴석굴의 보존을 위해서는 조선후기의 양상만이라도 잘 파악할 필요가 있다. 이 글은 기록을 중심으로 조선후기 골굴석굴의 양상을 추론하여 향후 보존과정에 일조코자 한다.

건과 연혁을 전하는 기록은 전해지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골굴석굴 관련 기록은 대부분 조선후기의 것이다. <골굴사마애여래좌상>을 기준으로 보면 골굴은 9세기 무렵에는 조성되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지만 기록은 전하지 않고, 관련 기록 역시 조선후기에 쓰여진 것이 대부분이다. 통일신라시대에 조성된 <골굴사 마애여래좌상>과 조선후기 기록 사이에는 천여 년의 시차가 있다. 따라서 조선후기의 기록만으로 골굴석굴의 원형을 추론하는 것은 한계가 없지 않다. 또 현재 골굴석굴의 현황은 조선후기의 기록과도 차이가 크다. 즉, 조선후기의 기록에는 6개 이상의 굴실에 지붕과 벽·문 등이 부가된 모습으로 묘사되어, 암벽을 따라 굴실이 노출

II. 骨窟석굴에 대한 기록

1. 遊山記

골굴석굴에 대한 문자기록은 대체로 조선후기에 쓰여진 것으로, 士族들의 遊山記이다. 遊山記는 사족들이 儒家의 德目 함양과 文章力 향상을 위해 행하였던 山水遊覽 후 쓰여 졌다. 이 중, 17~18 세기의 기록을 분석해보면 사족들이 유람했던 28 곳의 유람지 중 16 번째로 많이 방문한 곳이 경주였

다.³⁾ 사족들 중에서 골굴석굴을 직접적으로 묘사한 이는 11 명에 달한다. 이들이 기록한 바를 정리하면 다음의 <표 1>과 같다.⁴⁾

표 1. 골굴석굴이 언급된 조선후기의 遊山記 목록과 주요 내용

作者	出典 및 題目	주요 내용
權曄 (1552~1630)	『玉峯集』骨窟十韻	벼랑을 따라 그대로 집을 얹으니 ... 작은 방은 겨우 무릎을 들여놓을 정도 ... 서까래를 엮어서 조도와 연결하고 ... 단청은 전체를 밝히고 있다
丁時翰 (1625~1707)	『愚潭集』「山中日記」	석봉이 기괴하다. 괴석처럼 생긴 바위들이 층층이 쌓여 있고 거기에 굴이 있다. 굴 앞에는 간략하게 목조가옥을 세워 처마와 창이 있다. 벽에는 채색도 했다. 바위 사이에 단청이 된 전각 5,6 채가 걸려 있는 것이 바라다 보이는데 마치 그림 속 광경 같다 ...
洪世泰 (1653~1725)	『柳下集』骨窟	각 방면의 형세에 기대어 6 개 선방으로 나뉘 만드니 ...감 싼 바위엔 벌집이 벌려있네 ...
李萬敷 (1664~1732)	『息山集』骨窟	함월산 서쪽 끊어진 산기슭 한 면에 석굴 12 개가 있다. 처마를 얹고 창을 내어 석실을 만들었는데, 위 아래로 첩 첩히 쌓아 제도가 매우 기이하다. 바위굴엔 높은 처마 설 치하였다
鄭栻 (1683~1746)	『明庵集』「關東錄」	도함산에 들어가면 이른바 골굴이라는 것이 있는데, 제일가는 명승지이다. 바위 머리에 路室이 있는데, 아득하게 공중에 매달려 있는 것이 모두 6 곳이다.
	『明庵集』「禪堂窟」	이슬에 젖은 천층 벽이 절로 누대 되었는데 ...
	『明庵集』「觀音窟」	하늘이 열어 준 여러 층의 굴에는 옥이 비늘 같다. 처마에 는 영겁의 비 걸려자 ...
安景時 (1712~1794)	『晚悔集』題骨窟	사자가 벌린 크고 작은 뼈뿔어진 입과 같고 제비가 붙인 높고 낮은 교묘한 등지 같아라
任必大 (1709~1771)	『剛窩集』「遊東都錄」	바위에 기대어 집을 지은 것이 모두 여섯 채였는데, 흙을 발라 창문을 낸 것은 앞편뿐이었다. 멀리서 보면 마치 공 중누각처럼 보이고 다가가서 보면 기괴한 모양이 형언하 기 어렵다.

3) 이경순, 「17~18세기 士族의 유람과 山水空簡 인식」 서강대학교대학원 사학과 박사학위 청구논문, 2013, p.69, <그림 4> 참조.

4) 이밖에 閔遇洙(1694~1756)의 『貞菴集』 卷四 「答百祥」에 “且審骨窟內延之勝”라 한 바와 南龍萬(1709~1784)의 『活山集』 卷五 「記」 “算項山記”에 “左爲骨窟 右行者 蹲蹲起立”이라 한 바, 李鎭宅(1738~1805)의 『德峯集』 卷四 「北征日記」에 “宿夢天菴 菴在三日浦巖下 而四面削壁 似祇林之骨窟 矣”라고 언급한 바는 모두 골굴석굴에 대한 직접적 묘사가 아니므로 제외하였지만, 閔遇洙와 南龍萬·李鎭宅 모두 골굴석굴을 유람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作者	出典 및 題目	주요 內容
鄭師夏 (1713~1779)	『安分堂遺集』骨窟	열두 바위가 높이 솟아서 ... 층층이 기이하게 방을 만드니 ...
鄭東煥 (1732~1800)	『魯村公遺集』骨窟	사람의 솜씨로 부처님 집을 이루었네
南景羲 (1748~1812)	『癡庵集』 骨窟 次曲江崖上舍天翼韻	바위갭아 비스듬히 집을 지었는데 교묘하게 반쪽만 서가래를 엮었구나 ... 아미타불은 천고의 얼굴(미타불은 천년이나 된 오래된 얼굴) ...
	『癡庵集』骨窟	여섯 석굴 푸른 곳에서 만검동안 바둑을 둔다
南阜 (1807~1879)	『時庵集』骨窟	깊은 굴이 입을 벌려 집을 이루니 ... 처마 세워 암벽의 물방울 받고 문을 달아 바위의 구멍 메웠네

위의 <표 1>에 정리한 바와 같이 조선후기 士族들에게 골굴은 名勝으로 인식되어 곧 잘 방문하였던 산수유람처였다.⁵⁾ 골굴을 명승이라 여긴 인식은 ‘바위에 자연스럽게 생긴 굴’⁶⁾에 ‘전면에 목조가옥이 부가’되어 있는데⁷⁾ ‘층층이 기이하게 만들’ 엮고⁸⁾ ‘공중에 매달려’ 있다는 묘사를 통해 짐작할 수 있다.⁹⁾ 즉, 기암괴석에 공중에 매달린 듯 집이 형성되어 있던 골굴석굴의 양상을 기이하게 여겼던 것이다.¹⁰⁾

1) 骨窟석굴의 窟室 樣相

<표 1>에 정리한 유산기 내용에서 주목되는 바는 굴실의 양상 및 개수이다. 먼저, 골굴석굴의 양상은 權曄의 『玉峯集』을 통해 유추해 볼 수 있다.¹¹⁾

5) 鄭弼, 『明庵集』卷五 「關東錄」 “有所謂骨窟 卽第一名勝”; 鄭師夏, 『安分堂遺集』卷一 “骨窟 昔聞骨窟好”
6) 權曄, 『玉峯集』卷一 “骨窟十韻.....有石天生穴”
7) 權曄, 『玉峯集』卷一 “骨窟十韻.....緣崖仍立架”; 洪世泰, 『柳下集』卷七, “架簷接空缺”; 李萬敷, 『息山集』別集 卷四「地行錄[十]」“架簷開牖作石室”; 任必大, 『剛窩集』卷三 「遊東都錄」, “因巖爲屋”; 鄭東煥, 『魯村公遺集』卷一 「骨窟 次曲江崖上舍天翼」 “巖斜起屋”
8) 鄭師夏, 『安分堂遺集』卷一 “層層奇作室”
9) 鄭弼, 『明庵集』卷五 「關東錄」 “隱隱如懸空者”
10) 丁時翰, 『山中日記』 “奇怪如怪石形”; 任必大, 『剛窩集』卷三「遊東都錄」“遠視之若空中樓閣 迫視之奇怪難名”; 鄭師夏, 『安分堂遺集』卷一 “層層奇作室”
11) 權曄는 조선 중기의 文臣으로, 본관은 安東, 자는 叔晦, 호는 玉峯·玉山野翁 이다. 50세인 1601년(선조 34) 문과에 급제하여, 典籍·공조좌랑·해미현감·형조좌랑·호조좌랑·예조좌랑을 역임한 후

“바위에 자연스럽게 생긴 구멍은 어느 해엔가 교묘히 깎아내고 벼랑을 따라 결구를 세우니, ... 아주 작은 방으로 겨우 무릎걸음을 할 정도이다”¹²⁾

즉, 바위에 자연스럽게 생긴 구멍을 정교하게 파내었는데 크기는 무릎으로 걸을 정도로 작지만, 전면에는 목조결구를 부가하여 형성된 굴실이 암벽면을 따라 조성되어 있었던 양상을 묘사하고 있다. 이처럼 골굴석굴의 굴실이 매우 작다는 묘사는 洪世泰의 『柳下集』에도 등장한다.¹³⁾

“ ... 각 면의 형세에 기대어서는 여섯 개 선방으로 나뉘 만드니
 물건을 겨우 넣을 크기에 한 자리 평상 겨우 들어간다
 높은 공중엔 새 등지 깃들었고 감싼 바위엔 벌집이 벌려 있고
 하늘이 자금색의 형상 이루니 이끼 벗겨진 벽엔 부처님 계시네
 스님은 적막하여 살지 않는 듯 봄풀이 자라나 바위 길을 덮고
 배고프면 향기로운 솔잎을 먹고 다람쥐와 더불어 동굴에 사네
 남쪽으로 누대 하나 바라 뵈는데 빼어난 풍경이라 재삼 감탄하며
 높은 창문은 하늘로 반쯤 열렸고 조도는 나무 끝에 매달려 있네
 부어잡고 올라 잠시 문밖을 보매 어슴푸레한 것이 마치 귀신인 듯
 위태하여 감히 머물지 못하고서 ...¹⁴⁾”

위 인용문에서 보듯, 홍세태는 골굴석굴의 양상을 기이하고 신비롭게 여기며, 그 실제 양상을 언급하였다. 6 개의 선방은 처마를 얹은 6 개의 굴실로 여겨지는데, 그 규모는 물건을 넣을 정도이자 한자리 크기의 평상이 겨우 들어갈 정도라고 하였다. 그리고 그 외관은 공중의 새등지처럼 보였다 고 했다. 이 외에 벌집이 벌려 있는 모양은 목조가 부가되지 않은 굴실에 대한 묘사로 보인다. 이 인

1609년에는 輪城察訪에 임명되었으나 질병으로 사임하였다. 문집으로 1847년(헌종13) 후손들에 의해 편찬된 목관본 『玉峰集』 4권 2책이 있다. 골굴을 읊은 시 「骨窟十韻」은 동도 즉 경주에서 지은 것이다.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http://www.grandculture.net>) 인용

12) 權暉, 『玉峯集』卷一 “骨窟十韻 …… 有石天生穴 何年巧斲剜 … 斗室纔容膝 “

13) 洪世泰는 조선후기의 중인신분의 詩人으로 본관은 南陽이며 제술관·義盈庫主簿·남양감목관 등을 지냈다. 생전에 자신의 시문집을 엮었으나 간행하지 못하고, 死後 6년 만인 1731년(영조7)에 사위 趙昌會와 그 文人 金鼎禹에 의해 14권 7책의 활자본 『柳下集』이 간행되었다.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http://encykorea.aks.ac.kr>) 참고

14) 洪世泰, 『柳下集』卷七 “骨窟 … 架簷接空缺 因依各面勢 判作六禪室 度能十笏大 容得一床劣 懸空鳥巢寄 抱石蜂房列 天成紫金相 苔剝壁面佛 居僧寂若無 春草巖逕沒 飢餐松葉香 鼯鼠與同穴 南臺一相望 三歎叫奇絕 高窓天半開 鳥道掛木末 攀躋乍窺戶 恍惚疑鬼物 危乎不敢留 …”

용문에서 주목되는 것은 “壁面佛”이 있다고 한 것이다. 굴실 내부보다는 골굴석굴의 외양 묘사에 치중하고 있어, “벽면불”은 굴실내부 보다는 외부에 노출되어 있는 불상 즉, <굴굴사 마애여래좌상>을 가리키는 것으로 여겨진다. <표 1>에 정리한 것처럼 골굴석굴 관련 유산기에 구체적으로 佛像이 묘사된 바는 없으나, 南景羲¹⁵⁾가 『癡庵集』에 ‘미타불’이라 한 바는 불상을 묘사했을 가능성이 적지 않다.¹⁶⁾ 공중에 뜬 듯이 보이는 굴실의 처마와 굴실 사이를 연결하는 길을 묘사한 후 ‘미타불의 얼굴’이라 하고 있어, 골굴석굴의 맞은 편에서 바라보았을 때 인식되는 골굴석굴의 전경을 묘사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남경희가 왜 ‘미타불’이라 특정한 것인지는 불분명하다.¹⁷⁾

한편, 丁時翰도 『山中日記』에 골굴석굴의 양상을 상세하게 기록하였다.¹⁸⁾ 그는 1686년(숙종 12) 5월 16일 불국사에 이어 석굴암에 올랐다가 내려와, 골굴에 들러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골굴의 앞쪽 고개에 올라 돌 봉우리를 바라보니 돌의 형태가 기이하고 괴상하였다. 층층에 굴이 있고 굴 앞에는 假簷과 窓壁을 만들고 색을 칠하였다. 彩閣을 바라보니 바위 사이에 대어섯 閣이 걸려 있어 그림 같았다. 곧바로 法堂窟에 들어가 앉으니 법능이 앉아 있다가 자리를 마련하여 마주 대하였다. 잠시 앉아 있다가 법능에게 불을 지피 식사를 준비하게 하였다. 곧이어 修敏과 병이 난 노인 김운길과 함께 獅子窟에 오르니 비어 있었다. 說法窟과 正廳窟 터를 지나 僧堂窟에 이르니 비어있어 達磨窟 즉 수민이 거주하는 곳에 이르렀다. 다시 올라 禪堂窟에 이르니 거주하는 雙性 및 김운길의 아들이자 승려인 善淸과 善皆

15) 조선후기의 문신으로 본관은 경북 영양이다. 30세인 1777년(정조원년)에 소과에 입격하고 증광시에 급제하여 몇몇 관직을 역임하였으나 1791년(정조15) 이후 낙향하였다. 최근, 1779년의 불국사 중창불사 내역을 구체적으로 적은 「佛國寺復役功德記」의 저자가 남경희로 밝혀졌으며, 그의 부친 南龍萬(1709~1784) 역시 「佛國寺復役功德記」의 撰者라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다. 남경희의 문집으로는 그의 아들 南驥陽이 1860년(철종11)에 편집한 『癡菴集』12권6책이 있는데, 「佛國寺復役功德記」는 수록되지 않았다. 남동신,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 「佛國寺復役功德記」(1779년) 탁본 자료」 『미술자료』88호, 2015, pp.129~162.

16) 南景羲, 『癡庵集』卷一 “骨窟 次曲江崖上舍天翼 斷巖斜起屋 巧構半邊椽 路掛山腰樹 簷浮洞口天 彌陀千古面 老釋七分仙 縹緲疑看畫 添奇更夕烟”

17) 당시, 거대한 암벽에 새긴 상을 ‘미타불’이라 했던 것인지, 口傳되어 오던 바를 적은 것인지에 대해서는 좀 더 면밀한 연구가 필요하다.

18) 정시한은 조선후기의 학자로, 서울 출신이며, 본관은 羅州, 자는 君翊, 호는 愚潭이다. 원주로 낙향하여 학문수행과 후진양성에 매진하였다. 그의 문집인 『愚潭集』은 12권 6책, 목판본으로 1937년 편집간행되었다. 정시한이 1686년(숙종 12)부터 1688년(숙종 14)까지 3년간 총 4차례에 걸쳐 名山·古刹·書院 등을 여행하면서 기록한 『산중일기』는 17세기 사찰자료의 寶庫로 평가되고 있는데 1968년에 연세대학교 『人文科學資料叢書』제1집으로 影印되어 처음 세상에 알려졌다. 현재는 『愚潭先生文集』권19~20에 수록되어 있다. 신대현, 「『산중일기』를 통한 17세기 불교문화 고찰」 『文化史學』 제45호, 2016,6, p.107.

는 나가고 없는데, 방은 매우 정결하였다.”¹⁹⁾

위의 인용문에서 보는 바와 같이 정시한은 암벽에 조성된 석굴에 일일이 올라, 처마와 벽·창호로 구성된 전면의 양상과 이름을 명기하였다. 문맥을 보면, 골굴석굴의 아래쪽에서부터 위쪽으로 올라가면서 法堂窟 → 獅子窟 → 說法窟 → 正廳窟 → 僧堂窟 → 達磨窟 → 禪堂窟 순으로 거쳤다는 것과 가장 아래쪽에 법당굴이 있고 가장 위쪽에 선당굴이 자리하였던 것을 알 수 있다. 이 굴실들의 명칭이 당시 편액되어 있던 바인지, 정시한이 자의적으로 붙인 것인지 명확하지 않으나,²⁰⁾ 명칭을 통해 굴실의 용도를 유추해 볼 수는 있다. ‘법당굴’은 禮佛을 봉행하는 중심 굴, ‘설법굴’은 講堂, 승당굴과 달마굴 및 선당굴은 스님들의 처소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중 ‘승당굴’은 ‘사자굴’과 함께 “空”이라 하고 있어, 내부에 아무런 기물이 없이 텅 빈 실내공간인지,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다만, ‘설법굴’에 대해서도 아무런 설명 없는 것으로 보아 ‘승당굴’과 ‘사자굴’은 편액이 걸려 있지만 특별한 용도로 쓰이지 않던, 비어있는 상태였던 것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 이밖에 ‘정청굴’은 터를 지나갔다고 한 것을 보면, 정시한이 방문했던 무렵, 암벽에 굴실의 흔적만 남아 있었던 상황으로 여겨진다. 아울러 정청굴이라는 명칭에서 正廳은 ‘官衙에서 위치나 행정적으로 가장 중심이 되는 건물’로 해석해 볼 수 있으므로, 유산기를 집필한 士族들의 산수인식을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그들은 산봉우리나 臺의 이름을 儒家的 의미를 띤 것으로 바꾸는 한편, 佛家の 전승을 先代遺賢의 전승으로 대체하기도 했기 때문이다.²¹⁾ 따라서 조선후기 사족 유람자들의 산에 대한 유교적 담론이 골굴을 인식하고 서술하는데 배경이 되어, 佛像을 비롯하여 佛家에 대한 묘사를 자연스럽게 누락하였던 것이라 여겨진다.²²⁾ 그리고 이러한 사족 유람자들의 산에 대한 인식과 담론은 골굴석굴의 정상부에 조성되어 있는 통일신라시대의 <골굴사 마애여래좌상>에 대한 묘사도 생략케 하였던 것이 아닐까 한다.

한편, 權曄와 洪世泰가 골굴석굴의 굴실이 매우 작다고 한 바와 <표 1>에 정리한 유산기 작자 대부분이, 굴실 내부의 장엄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바를 고려해보면, 골굴석굴의 굴실 대부분은 불상

19) 丁時翰, 『山中日記』下, 원주사료총서 제11권, 원주시, 2012년, pp.270~274 “1688年 5月16日(丁亥) … 骨窟上前峴望見石峯奇怪如怪石形層層有窟 窟前構假簷窓壁施彩 望中彩閣五六掛在巖間宛如畫圖 卽入坐法堂窟有僧法能設席相迎坐小時使能炊卽與修敏及老病人金雲吉同上獅子窟空歷說法窟政廳窟基僧堂窟空至達磨窟卽修敏所居又上禪堂窟窟僧雙性及雲吉子僧善清善皆出去而房甚精”

20) <표1>에 정리한 바와 같이 대부분의 文人들은 골굴석굴 굴실의 이름을 명기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21) 이경순, 앞의 논문, p.193. 어찌면, 비불교적인 骨窟이라는 명칭도 언젠가 사족들이 이름 붙인 이후 통칭된 것이 아닐까 한다.

22) <표1>에 정리한 유산기 중에서 洪世泰만 『柳下集』에 “苔剝壁面佛”이라 묘사하였다. 한편, 사족들의 유교적 담론은 서술 내용뿐만 아니라 용어에도 영향을 미쳤던 것으로 보인다. 예컨대 鄭弼은 窟室을 여관이라는 의미인 “路室”이라 하였기 때문이다. 『明庵集』「關東錄」“巖斗有路室”

및 불화로 장엄되지 않은 승방굴로 구성되어 있었던 것 같다.²³⁾

2) 窟室의 個數

앞의 <표 1>에 정리한 바와 같이 골굴을 언급한 유산기에는 ‘6 개의 禪室’이라거나²⁴⁾ ‘12 개의 石窟’²⁵⁾이라는 묘사가 있다. 이들 내용을 상세히 보면 6 개의 굴은 석굴의 숫자라기보다는 처마가 달린 굴실에 대한 인식으로 보이고, 12 굴은 바위의 형상이거나 6 개 굴실을 포함하여 바위에 자연스레 형성되어 있던 석굴을 모두 포함한 인식으로 여겨진다. 골굴석굴의 굴실 전면에 목조건물이 부가된 6 곳의 명칭은 정시한이 『산중일기』에 언급한 法堂窟·獅子窟·說法窟·僧堂窟·達磨窟·禪堂窟로 추정해볼 수 있다.²⁶⁾ 그러나 <표 1>에 정리한 바와 같이 鄭栻²⁷⁾의 『明庵集』에는 ‘禪堂窟’ 및 ‘觀音窟’이라는 詩가 전한다. 이 두 詩의 앞뒤로 ‘瞻星臺’와 ‘舍月山 祇林寺’라는 제목의 詩가 수록되어 있고, 모두 경주에 있는 명승지여서 선당굴과 관음굴 역시 경주에 소재한 곳으로 추정된다. 토함산에는 골굴석굴 외에 석굴암도 있으므로, ‘선당굴’과 ‘관음굴’이라는 詩가 석굴암을 읊은 것이라 볼 수도 있지만, “천층 벽이 절로 누대가 되어...”²⁸⁾라는 구절 및 “여러 층의 굴에는...”²⁹⁾이라는 구절은 암벽 면에 여러 층으로 형성되어 목조가 부가되어 있던 골굴석굴이라 보는 게 타당해 보인다. 그런데 ‘선당굴’은 정시한의 「산중일기」에도 등장하지만 ‘관음굴’을 언급한 곳은 鄭栻의 『明庵集』이 유일하다. 현재, 관음굴은 골굴석굴에서 유일하게 목조가옥이 굴실 앞에 부가되어 있는 곳이다. 그렇다면 여기서 고려할 것은 정시한과 정식이 골굴석굴을 유람한 시기이다. 알려진 바와 같이 정시한은 1688년 5월 16일(丁亥) 골굴석굴을 방문하였다. 이에 반해 정식은 丁未年 봄에 관동지방을 여행하며 골굴석굴을 방문했다. 그의 생몰년에 비추어 보면 이때의 정미년은 1727년에 해당한다. 즉,

23) 인도의 석굴은 비하라(승원굴)과 차이티아그리하(예배굴)로 크게 두가지 형식으로 구분하지만, 중국석굴은 평면구조와 사용기능에 따라 塔廟窟·佛殿窟·僧房窟·大像窟·佛壇窟·小型禪窟·禪窟群 등의 7가지 유형으로 구분하고 있다. 마쓰창(馬世長)外 著·양은경 譯, 『중국불교석굴』, 다올미디어, 2006, p.17

24) 洪世泰, 『柳下集』卷七, “骨窟...判作六禪室”; 鄭栻, 『明庵集』卷五 「關東錄」 “隱隱如縣空者凡六處”; 任必大, 『剛窩集』卷三 「遊東都錄」, “因巖爲屋者凡六”; 南景義, 『癡庵集』卷一 “骨窟 … 六窟蒼蒼”

25) 李萬敷, 『息山集』別集 卷之四 「地行錄」 “有石窟十二”; 鄭師夏, 『安分堂遺集』卷一, “十二巖高揭”

26) 정청굴은 터라 명기되어 있어, 굴실 전면의 목조건물이 남아 있지 않은 것으로 판단하여 제외하였다.

27) 정식은 조선후기의 학자로 자는 敬甫, 호는 明庵이다. 평생 출사하지 않고 산수유람을 하다 만년에 두류산에 암자를 짓고 지내다 여생을 마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의 시문집은 『명암집』이다.

28) 鄭栻, 『明庵集』卷三 「詩」 “禪堂窟 壁露千層自作臺 禪居寂寞頓無埃 人間浪有三生說 世外今經幾劫灰 簷影時時松鶴過 簫聲夜夜海仙來 登茲一笑風塵事 欲閉巖局永不開”

29) 鄭栻, 『明庵集』卷三 「詩」 “觀音窟 山深石路更清真 洞僻松陰絕世人 鬼秘仙區金片片 天開層窟玉鱗鱗 簷收劫雨靈芝綠 燈盡禪窓慧月新 惟有一僧雲霧裏 幾回蒼海變生塵”

정시한과 정식의 방문에는 약 40 여년의 시차가 있는 것이다. 이 기간에 골굴석굴에 변화가 초래되었고 그 내용은 굴의 이름이 바뀌거나 새로운 굴이 조성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그렇다면 이 기간 동안 현 위치의 관음굴이 새롭게 조성되었을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정식이 「關東錄」에 6 개 굴실이 공중에 매달려 있다고 묘사한 바와 선당굴과 관음굴이 있었던 바, 정시한의 「山中日記」에 기록된 바 등을 고려해보면 17 세기 후반~18 세기 전반의 골굴석굴에는 法堂窟·獅子窟·說法窟·僧堂窟·達磨窟·禪堂窟·觀音窟이 존재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중 어느 석굴이 40 여년의 기간 중 사라졌거나 두 개의 편액을 달았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 祇林寺事蹟記

골굴사는 현재 대한불교 조계종 제 11 교구 佛國寺의 末寺로 등록 되어 있다. 그러나 1718 년(숙종 44)에 不慧가 찬술한 필사본을 1740 년에 方詞婆가 편찬한 『新羅舍月山祇林寺事蹟』에 ‘골굴’이 언급된 바를 보면, 이 무렵에는 골굴사가 기림사에 소속되어 있었음을 알 수 있다.³⁰⁾ 여기서 골굴석굴에 대한 언급은 두 곳인데, 앞부분에는 18 세기 무렵의 골굴석굴 모습을 상세하게 기록하였고 뒷부분에는 앞부분 내용을 7 언 율시로 정리하였다.³¹⁾ 앞부분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산의 응달(북쪽에) 천생석굴이 있는데 12곳으로 구분하여 각기 이름 짓고 편액하였다. 돌 빛이 티 없이 맑아 모두 雪山이라 칭하였는데 혹자는 檀特山³²⁾이라고도 한다. 매우 기구하고 험준하여 발붙일 곳이 없다. 돌을 갈아 발 디딜 자리를 만들어 굴 안으로 들어가게 된다. 그 속에 돌이 편편하여 방처럼 생긴 곳이 있어 돌을 베개하고 누우면 차지도 않고 훈훈하며 병자가 거주하면 병이 낫기도 한다. 그리고 굴벽에는 조각한 석불도 있는데 어느 때의 조성인지 알 수 없으나 연기에 그을려서 알아 볼 수가 없다. 또 굴 위에 조각한 석불에서는 자주 서광이 빛나, 시냇물과 마을 및 석굴에 비친다고 하는데 이러한 기적은 해마다 있는 것이

30) 『新羅舍月山祇林寺事蹟』은 내용 대부분이 「月印千江之曲」의 줄거리를 기림사의 창건설화와 연결시켜, 「월인천강지곡」에 등장하는 光有聖人을 기림사증창기의 광유성인과 동일시하여 1718년의 필사본을 수정·판각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한상길, 「기림사의 역사와 사상」 『불교미술』 15, 동국대학교박물관, 1998, p.10.

31) 7언율시는 다음과 같다.

方詞婆 編, 『新羅舍月山祇林寺事蹟』 “區分十二天生窟 迥絕塵緣恒淨潔 縹緲危巒戴月高 崎嶇曲路彫崖出 岩房不熱石運懷 檀木無煙煮自鬱 休道天西聽嶺外 海東亦有眞闍壠”

32) 북인도 건타라국에 있던 산으로, 本生譚에 따르면 붓다가 전생에 須太擘太子로 있을 때, 이 산에서 보살행을 닦으면서 소유한 모든 것을 婆羅門에게 주어 보시를 완수했다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 일설에는 석가모니께서 入山修道한 산이라고도 한다. 네이버국어사전(<http://krdic.naver.com>) 참조.

다.”³³⁾

위의 『新羅舍月山祇林寺事蹟』에는 앞 절에서 살펴본 遊山記에 언급되지 않은 바가 있어 주목된다. 예컨대 ‘돌을 갈아 발 디딜 자리를 만들어 굴 안으로 들어가며, 굴 안은 편편하고 방처럼 생겼다’는 것이다. 즉, 바위산에 자연스럽게 형성된 구멍을 더 파내고 다듬어서 방처럼 만들어 사람이 누울 수 있을 정도로 만들었으며 그 앞으로는 사람이 다닐 수 있도록 바위 면을 갈아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굴실 중에는 壁佛 즉, 벽에 석불이 조각된 곳이 있었는데 연기에 그을려 어떠한 불상인지 알 수 없고,³⁴⁾ 굴 위쪽에 조각된 석불은 상서로운 빛이 뻗어 나와 주위를 비춘다고 한 것이다. 즉, 2개의 불상이 조성되어 있었던 바를 묘사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굴 위의 석불은 현존하는 <골굴사 마애여래좌상>(보물 제 581 호)으로, 굴실 내에는 <골굴사 마애여래좌상> 보다 규모가 작은 마애불이 조성되어 있었던 바를 추론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굴실 내의 마애불을 ‘壁佛’, <골굴사 마애여래좌상>을 ‘彫刻石’이라 표현한 바는 쉽게 이해되지 않는다. 다만, 홍세태는 <골굴사 마애여래좌상>을, 방사파는 굴실 내부의 상을 ‘벽불’이라 하였다는 차이가 있다.

3. 지도 및 회화

골굴석굴에 대한 또 다른 기록은 지도 및 회화에서 파악된다. 여기에 묘사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地圖

<海東地圖>³⁵⁾에는 기림사의 남쪽에 바위산이 그려져 있고 그 왼쪽에 ‘骨窟’이라 쓰여 있으며, 바위산에는 3 동의 건물이 각기 ‘우진각지봉의 단칸 건물’로 묘사되어 있다. (도 2) 골굴에 건물이 가장

33) 方詞婆 編, 『新羅舍月山祇林寺事蹟』 “山之陰有天生石窟區分十二處各有名扁而繁不悉錄石色純白故亦稱雪山或稱檀特也 地勢傾危絕巖綠足故研壁層凹垂卧容走屈內凸爲枕人或枕之不强不寒也 房自不蒸而自溫有病者居之久自瘳厥房內又有壁佛不知其幾許代而煙塵蒙着儀無可賞然而不違新伏若然則新伏轉傳剝澗終至潰散也 又窟上彫刻石伏頗有祥光与川洞及石窟三處瑞氣相屬逐年不發其實踵異跡”

34) 굴실 중 壁佛이 있다는 묘사는 『新羅舍月山祇林寺事蹟』가 유일하다.

35) 영조년간(1725~1776)에 작성된 8책의 채색필사본 지도책으로 도별읍지를 모은 『輿地圖書』를 보완하기 위하여 만들어진 것이다. 제1책 경기도, 제2책 해서전도·관서전도, 제3책 관동전도·북관전도, 제4책 서북피아양계전도, 제5책 영남전도, 제6책 호서전도, 제7책 호남전도, 제8책 팔도총도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울대규장각 한국학연구원에 소장되어 있다.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참조.

표 2. 骨窟이 묘사된 조선후기의 지도

海東地圖의 골굴 (도 2)	慶州都會左通地圖의 골굴 (도 3)	廣輿圖 慶州府의 골굴 (도 4)
		
備邊司印方眼地圖의 골굴 (도 5)	輿地圖 慶州府의 골굴 (도 6)	地乘 慶州府의 골굴 (도 7)
		

많이 묘사된 것은 〈慶州都會左通地圖〉이다.³⁶⁾ 여기에도 기림사의 남쪽으로 바위산이 있고 거기에 8 채의 건물이 공중에 뜬 것처럼 묘사되어 있으며, 그 왼쪽에 ‘골굴’이라 쓰여져 있다.(도 3) 또, 〈廣輿圖-慶州府〉³⁷⁾에도 기림사 남쪽에 ‘골굴’이라 쓰여 있고 산이 표시되어 있으나 바위산이 아닌 토산

36) 채색 필사본 지도로, 경주를 중심으로 慶尙左道의 18개 군현이 표기되어 있으며 하천의 유로, 산줄기 및 수록된 지명 등이 『海東地圖』와 거의 동일하게 그려져 있다. 서울대규장각 한국학연구원에 소장되어 있다.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http://www.grandculture.net/>)참조.

37) 경기도에서 함경도까지 7책으로 구성된 지도책으로, 회화식 지도에서 기호식 지도로 넘어가는 과도기인 19세기 전반에 제작된 것이다. 서울대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소장.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http://www.grandculture.net/>)참조.

과 동일하게 묘사되어 있고 골실 전면의 목조건축은 표현되지 않았다.(도 4)

한편, 골굴이 묘사되어 있는 지도 중에서 골굴이 위치한 바위산이 가로로 길고 이에 따라 골실 전면에 부가된 목조건축도 가로로 구획을 나누어 나란히 그려진 것은 <備邊司印方眼地圖>³⁸⁾가 유일하다.(도 5) 이밖에 <輿地圖-慶州府>³⁹⁾에는 기림사에서부터 이어지는 산의 끝자락이 골굴이고 목조건물은 그 끝부분에 세로로 나란히 두 채가 묘사되어 있는데 3 칸 규모라는 점이 앞서 살펴본 지도와 다르다.(도 6) 또, 19 세기에 제작된 <地乘>에는 위 아래로 산으로 둘러싸인 구획에 4 채의 건물이 그려져 있고 그 오른쪽에 세로로 골굴이라 쓰여져 있다.⁴⁰⁾ 기림사는 골굴 보다 위쪽에 산봉우리로 둘러싸인 하나의 구획 안에 존재하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고 석굴은 골굴의 오른쪽 아래에 비석처럼 묘사된 곳에 쓰여져 있다.(도 7)

이들 지도들에는 모두 “골굴” 아래 부분에 “석굴” 이라 명기되어 있다. 즉, 조선후기에 제작된 회화식 지도에는 위에서 아래로, “祇林寺-骨窟-石窟”이 차례로 표기되어 있는 것이다. 지리적으로 보면 각기 토함산의 동쪽·남쪽·서쪽에 위치하고 있는 이 3 곳이 경주의 대표적인 명소로 널리 인식되고 있었던 바를 시사하는 것으로 보인다.

2) 회화

謙齋 鄭勲(1676~1759)이 58 세 때인 1733 년(영조 9)에 그렸다고 전해지는 『嶺南名勝帖』에 <경주 골굴석굴도>가 있어 골굴의 18 세기 양상을 살필 수 있다.⁴¹⁾(도 8) 그러나 이 그림에는 앞서 살펴본 지도와 달리 골굴의 기암괴석을 오른쪽에, 목조건물을 그 왼쪽에 그려 놓았다. 목조건물은 팔작 지붕에 측면이 2 칸, 정면이 3 칸 이상 규모로 묘사되어 있다. 이 건축물의 오른쪽 아래로 또 다른 건축물이 있는데 우진각지붕에 정면 3 칸으로 묘사되어 있다. 이 건물은 둘레로 여백이 있고 그 주변이

38) 18세기 중엽 비변사에서 제작한 것으로 필사본 방안식이다. 경상도의 71개 고을 지도가 수록된 군현 지도집이며 총 6책으로 구성되어 있다. 서울대규장각 한국학연구원 소장.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 (<http://www.grandculture.net/>)참조.

39) 3책의 지도책으로, 보물 제1592호로 지정되어 있다. 2책에 팔도지도가 경기도-충청도-전라도-경상도-황해도-평안도-강원도-함경도의 순서로 수록되어 있다. 제작시기는 지도내용을 기준으로 하여 18세기 말로 추정되고 있다.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참조.

40) 총 6책의 채색필사본으로 전국 各道 郡縣에 대한 지도와 그 지방의 형세를 수록한 地理書로, 『輿地圖』와 유사한 계열이다.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www.kyujianggak.snu.ac.kr/) 해제 참조.

41) 현재 『嶺南名勝帖』에 전하는 <골굴석굴도>는 ‘검재의 진작인가 아닌가’ 하는 진위 문제가 제기되어 있다. 검재가 58세 때인 1733년에 그렸다고 하는데 60대의 검재 화풍과 매우 다르다고 판단하여 검재의 손자 정항(1735~1800)의 작품으로 추정하기도 하고, 18세기 후반에 활동한 무명화가의 작품으로 보기도 한다. 이에 대해서는 유미나, 「검재 골굴 석굴도의 의의」 『정통석굴사원 골굴사의 문화와 석굴구조』(사단법인 한국미술사연구소·골굴사, 2016), pp.46~52 참조.

바위로 인식되게 묘사된 것을 보면, 바위 면에 부가된 목조물로 여겨진다. 화면의 두 건물은 비스듬하게 그린 길로 이어져 있는데, 이 길은 다시 화면의 왼쪽 아래로도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맞은편 아래쪽으로는 언덕처럼 보이는 곳의 나무 아래에 두 남성이 앉아 있다.

한편, 오른쪽 윗부분에 “慶州 骨窟石窟”이라 쓰여진 바는 ‘골굴이라는 석굴’을 그린 것으로 볼 것인지, ‘골굴’과 ‘석굴암’을 한 화폭에 그린 바를 기록한 것이라 볼 것인지를 문제가 있다. 그런데 남경희의 『癡菴集』에 「雨中宿石窟」·「石窟與從兄仲瞻景樞 崔卿玉 元宜伯同賦」 및 「骨窟 次曲江崔上舍天翼韻」·「骨窟」에, ‘석굴’과 ‘골굴’을 구분하여 수록한 바는 조선 후기 당시 ‘석굴’은 현재의 석굴암을 ‘골굴’은 현재의 골굴석굴을 지칭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아울러 〈경주 골굴석굴도〉는 1963년~1966년에 행해진 석굴암 보수공사 당시 전실에 목조 지붕의 가구를 씌우는데 근거자료가 되었다.⁴²⁾ 그러나 석굴암에 목조전실이 없었다는 주장도 제기되어 있어⁴³⁾ 단언하기는 어렵다.⁴⁴⁾

한편, 앞서 살펴 본 회화식 지도에서는 “기림사-골굴-석굴”이 종렬로 표기되었는데, 〈경주 골굴석굴도〉에는 기림사가 표현되지 않았다. 실제로 토함산에서 골굴이 동쪽, 석굴암이 서쪽에 위치한 것을 고려해보면 〈경주 골굴석굴도〉는 공간왜곡이 심하긴 하지만 당시 골굴과 석굴에 대한 인식을 드러내고 있는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미 관찬 〈慶州都會左通地圖〉에도 기림사 아래 골굴, 그 아래 오른쪽으로 석굴이라 명기하였기 때문이다.(도 3)



도8. 정선, 〈경주 골굴석굴도〉 『교남명승첩』, 지본담채, 25.8×38.3cm, 간송미술관

42) 문화재관리국, 『石窟庵修理工事報告書』, 1967, p.10

43) 남천우, 「佛龕을 포함한 諸像과 石窟 法堂의 敎理의 解釋」 『歷史學報』111, 1986, pp.14; 최영성, 「석굴암 석굴 重修上棟文(1891) 연구-譯註를 곁하여-」 『보조사상』no.47, 2017, pp.319~366.

44) 남동신, 앞의 논문, p.134.

Ⅲ. 骨窟석굴의 형태 추론

1. 배치 및 크기

거대한 응회암 면에 자연적으로 생긴 구멍을 인위적으로 파서 형성한 골굴석굴은⁴⁵⁾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12 곳이 석굴로 조성되어 있었고, 이 중 6 곳이 지붕과 벽·창호가 가설되어 있던 굴실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이들 12개 석굴은 어떻게 배치되어 있었을까.

平地나 山地에 조성되었던 불교사찰의 목조불전이 창건목적과 시대에 따라 달리 배치되었던 바는 추론할 수 있으나 암벽에 조성되는 굴실의 경우, 배치 계획을 추론하기 어렵다. 더욱이 골굴석굴의 경우, 응회암이라는 물적 조건이 가장 크게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보인다. 조각을 새기기 쉽지만 풍화도 쉬운 응회암의 물성으로 인해 골굴석굴의 배치와 유지는 많은 제약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골굴석굴은 최초에는 자연적으로 생긴 굴을 수도를 위한 장소로 활용하다가 비바람을 막기 위해 지붕과 벽·창호 등을 가설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배치는 계획적으로 이루어졌다기 보다는 자연적으로 생긴 굴을 중심으로 하되, 이웃한 굴을 무너뜨리지 않는 범위에서 조성되었을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골굴사에서 굴실 전면에 지붕과 벽 및 창호가 부가된 곳은 관음굴이 유일하다.(도9) 관음굴은 굴실이 비교적 넓고 입구에 부가된 목조도 크게 조성되어 있지만, 이 모습이 조선후기의 모습이라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표 1>에 정리한 바와 같이 유산기에 “벼랑을 따라 그대로 집을 지으니”⁴⁶⁾ 라거나 “층층이 기이하게 방을 만드니”⁴⁷⁾ 또는 “멀리서 보면 마치 공중누각처럼 보이고”⁴⁸⁾ 라는 묘사를 통해 조선후기 동안 골굴석굴은 현재처럼 4개층으로 이루어져 각 층마다 형성되어 있던 굴실 중 6곳 전면에 지붕과 벽 및 창호를 가설하였던 것을 유추할 수 있다. 현재, 국내에서는 바위면에 형성된 굴실의 전면에 누각처럼 보이는 건물이 공중에 매달린 모습처럼 가설된 모습은 거의 볼 수 없다. 직접적 비교대상이라 하기는 어렵지만, 바위산 곳곳에 132개의 석굴이 개착되어, 일부 석굴에만 지붕과 벽·창호 등이 부가되어 있는 중국 宁夏回族自治区의 须彌山石窟은 골굴석굴의 조선

45) 골굴석굴 일대는 안산암질 응회암으로 이루어져 있다. 황기환, 「경북지질탐사 대장정-7.경주의 지질」 『경북일보』 2018년 3월2일 참조.

46) 權暉, 『玉峯集』 卷一 “緣崖仍立架”; 任必大, 『剛窩集』 卷三 「遊東都錄」 “因巖爲屋”; 南景義, 『癡庵集』 卷一 “斷巖斜起屋”

47) 鄭師夏, 『安分堂遺集』 卷一, “層層奇作室”; 鄭栻, 『明庵集』 卷五, “天開層窟”

48) 任必大, 『剛窩集』 卷三 「遊東都錄」 “遠視之若空中樓閣”; 鄭栻, 『明庵集』 卷五 「關東錄」 “隱隱如懸空”; 洪世泰, 『柳下集』 卷七 “懸空鳥巢寄”



도9. 골굴석굴 중 관음굴



도10. 宁夏回族自治区의 须弥山石窟

후기 양상을 추론하는데 고려의 대상이 된다.⁴⁹⁾(도 10)

한편, 굴실의 크기는 1966 년 문명대교수에 의해 <표 3>과 같이 실측치가 조사 발표 된 바 있다.⁵⁰⁾

표 3. 골굴석굴의 크기

(단위 m)

번호	제1굴	제2굴	제3굴	제4굴	제5굴	제6굴	제7굴	제8굴	제9굴	제10굴
높이	6	2.1	5.98	1.5	2.7	2.8	1.95	3.1	1.96	2.5
폭	5.4	5.3	5.3	3.15	9.1	5.5	4.5	8	5	8
깊이	5.3	2.7	1.2	1.2	1.5	2.7	1.8	3.7	4	3.3

<표 3>에 따르면 굴실들은 대체로 깊이에 비해 폭이 넓고 높이도 6m 에 달하는 1 굴과 3 굴을 제외하면 2m 내외로 유사하다. 폭은 5,8,10 굴을 제외하면 5m 내외 크기였으며 깊이는 1 굴과 8,9 굴을 제외하면 2m 내외였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실측치는 앞서 살펴 본 遊山記에 묘사된 바와 대동소이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그러나 이 굴실의 순번이 정시환의 『山中日記』에 명시된 굴실의 순서와 일치하는지는 불분명하다. 다만, 제 1 굴이 다른 굴들에 비해 크기가 큰 것을 보면, 『산중일기』에 묘

49) 중국의 10대 석굴 중의 하나로 전국중점문화보호단위로 지정되어 있는 수미산석굴은 宁夏回族自治区 固原市 서북 55km 지점, 原州区 경내 寺口子河 북쪽의 须弥山 봉우리에 위치한다. 北魏 때 건축되기 시작하였고 北周와 唐代에 흥성하였다. 현존하는 132개의 석굴 중 비교적 완전한 형태는 20여 개이고, 70여 개에는 불상이 조각되어 있다. 마쓰창 외 저, 양은경 역, 앞의 책, pp.200~217.

50) 골굴석굴이 구성되어 있는 바위산을 동남쪽 끝에서부터 차례로 번호를 붙이고 실측하여 제시한 것이다. 문명대, 앞의 논문 및 문명대, 『토함산석굴』 한언, 2000, p.182.

사된 법당굴이 아닐까 한다.⁵¹⁾ 나아가 쌍선을 비롯하여 세분의 스님이 기거하던 선당굴로는 폭이 넓고 깊이가 깊은 제 8 굴이 해당될 것으로 보인다.

2. 窟室의 立面 및 內部

〈표 1〉에 인용한 골굴석굴의 내용을 정리해 보면, 골굴석굴의 굴실은 물건을 넣을 정도의 크기거나 무릎걸음을 해야 할 정도로 매우 작은 면적인데도 불구하고 전면에 흠으로 벽을 세워 창호를 달았음을 알 수 있다. 아울러 ‘서까래가 바위 면에 연결되는 바와 삼면의 현관 및 단청도 언급되고 있어 입면은 여느 불전처럼 장엄되었던 것으로 보인다.⁵²⁾ 그리고 일부 굴실 내부 벽에는 마애불[壁佛]이 조성되어 있었던 것으로 여겨진다.⁵³⁾ 다만, 석굴 내부에 있고, 연기에 그을려 어느 시대의 어떤 상인지 알 수 없다고 한 것을 보면, 석굴 內에 불단을 마련해두고 향초공양 했던 것을 유추할 수 있다. 아울러 굴 위에 조각이 있다거나 이끼 벗겨진 벽에 불상이 있다고 묘사된 상은 〈골굴사 마애여래좌상〉으로 여겨진다.⁵⁴⁾

IV. 맺음말

이상, 조선후기 사족들이 명승지를 유람 후 적은 遊山記와 지도 및 회화, 『新羅舍月山祇林寺事蹟』 등에 언급된 조선후기 골굴석굴의 양상을 살펴 보았다. 그 내용을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51) 문명대교수 역시 골굴입구의 큰 굴을 ‘법당굴’이라 보았다. 문명대, 「골굴사 석굴구조와 마애 장륙 석가불좌상의 의의」 『정통 석굴사원 골굴사의 문화와 석굴구조』(사단법인 한국미술사연구소·골굴사), 2016, p.31 참조. 이에 반해 〈골굴사마애여래좌상〉이 마애굴에 자리하였던 바는 조선후기 골굴관련 기록에서 찾을 수가 없다. 그러나 마애불 주변에서 다수의 기둥구멍[柱穴]이 확인된 바를 보면 마애불을 감싸는 대형구조물이든, 그 앞의 예불공간을 위한 테라스구조든 어떠한 구조체가 조성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다만 조성시기가 언제인지는 불분명하다. 한동수·이성호, 「경주 골굴암 석굴 전실의 건축적 원형 고찰」 『정통 석굴사원 골굴사의 문화와 석굴구조』(사단법인 한국미술사연구소·골굴사), 2016, p.89

52) 權暉, 『玉峯集』卷一 “斗室纔容膝 田窓可啓顏 結椽通鳥道 …名額開三面 丹青煥一般”; 丁時翰, 『山中日記』 “窟前構假簷窓壁施彩”; 任必大, 『遊東都錄』 “惟塲土開闢者前面而已”; 洪世泰, 『柳下集』卷七, “度能十笏大容得一床劣”; 李萬敷, 『息山集』 “架簷開闢作石室”

53) 『新羅舍月山祇林寺事蹟』 “房內又有壁佛不知其幾許代而煙塵蒙着儀無可賞然”

54) 洪世泰, 『柳下集』 卷七 “苔剝壁面佛”; 『新羅舍月山祇林寺事蹟』 “又窟上彫刻石伏頻有祥光與川洞及石窟三處瑞氣相屬遂年不發其實蹟異跡”

첫째, 바위산에 자연스럽게 생긴 굴을 인위적으로 평평하게 갈아 한 두 사람이 겨우 들어갈 수 있는 정도의 크기로 조성되어 있었다.

둘째, 사람이 들어가 앉을 수 있는 정도의 굴실은 12 개가 조성되어 있었다.

셋째, 12 개의 굴실 중 6 개의 굴실에는 처마와 벽·창호가 부가되어 있었다.

넷째, 굴실에는 최소 2 곳에 마애불이 조성되어 향과 초로 공양되고 있었다.

다섯째, 각 굴실은 각기 용도가 정해져 그에 상응하는 편액이 걸려 있었다.

이처럼 암벽을 깎고 파낸 후, 삼면에 목조를 조성하였던 조선후기 골굴석굴의 양상은 현재와는 사뭇 달랐다. 그러나 굴 전면에 부가되었던 처마와 벽 및 창호 등은 현재 남아 있지 않다. 퇴락되기 쉬운 목조의 특성과 함께 다공질의 가공이 쉬운 응회암이라는 암벽의 물성도 현재의 모습이 되는데 일조했을 가능성이 높다. 모두 골굴석굴의 원형탐색과 보존에 고려해야 할 요소라 하겠다.

주제어(Key Words)

골굴(gol-gul),石窟(cave), 岩壁開鑿式(rock cut type), 遊山記(yousangi),
磨崖佛(Rock-carved Buddha), 응회암(tuff)

〈참고문헌〉

權曄, 『玉峯集』 / 南景羲, 『癡庵集』 / 南龍萬, 『活山集』 / 閔遇洙, 『貞菴集』
李萬敷, 『息山集』 / 任必大, 『剛窩集』 / 鄭師夏, 『安分堂遺集』 / 鄭栻, 『明庵集』
洪世泰, 『柳下集』 / 『新羅舍月山祇林寺事蹟』

마쓰장(馬世長)外 著 · 양은경 譯, 『중국불교석굴』, 다홀미디어, 2006.

문명대, 『토함산석굴』, 한언, 2000.

문화재관리국, 『石窟庵修理工事報告書』, 1967.

丁時翰, 『山中日記』下, 원주사료총서 제11권, 원주시, 2012.

남동신,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 「佛國寺復役功德記」(1779년) 탁본 자료」 『미술자료』88호, 2015.

남천우, 「佛龕을 포함한 諸像과 石窟 法堂의 教理的 解釋」 『歷史學報』111, 1986.

문명대, 「한국 석굴사원의 연구」 경북대학교대학원 석사학위청구논문, 1967.

문명대, 「골굴사 석굴구조와 마애장육석기불좌상의 의의」 『정통석굴사원 골굴사의 문화와 석굴구조』(사단법인 한국미술사연구소 · 골굴사), 2016.

신대현, 「『산중일기』를 통한 17세기 불교문화 고찰」 『文化史學』 제45호, 2016.

유미나, 「검재 골굴석굴도의 의의」 『정통석굴사원 골굴사의 문화와 석굴구조』(사단법인 한국미술사연구소 · 골굴사), 2016.

이경순, 「17~18세기 士族의 유람과 山水空簡 인식」 서강대학교대학원 사학과 박사학위청구논문, 2013.

최영성, 「석굴암 석굴 重修上棟文(1891) 연구-譯註를 겸하여-」 『보조사상』no.47, 2017.

한상길, 「기림사의 역사와 사상」 『불교미술』15, 동국대학교박물관, 1998.

한동수 · 이성호, 「경주 골굴암 석굴 전실의 건축적 원형 고찰」 『정통 석굴사원 골굴사의 문화와 석굴구조』(사단법인 한국미술사연구소 · 골굴사), 2016.

황기환, 「경북지질탐사 대장정-7. 경주의 지질」 『경북일보』2018년 3월2일
『東亞日報』1964년 2월13일자

네이버국어사전 (<http://krdic.naver.com>)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http://kyujanggak.snu.ac.kr>)

왕실도서관 장서각 디지털아카이브 (<http://yoksa.aks.ac.kr>)

유교넷 (<http://www.ugyo.net>)

한국고전번역원 (<http://db.itkc.or.kr>)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http://encykorea.aks.ac.kr>)

한국향토문화전자대전(<http://www.grandculture.net>)

기록을 통해 본 조선후기 골굴석굴의 양상

손신영

경주 골굴석굴은 암벽개착식 석굴로, 축조식 석굴인 석굴암에 비해 석굴사원의 원형에 가깝다. 벼랑에 조성된 골굴석굴의 양상은 처음 조성된 이래로 여러 변천을 거친 것으로 보인다. 이 글에서는 골굴석굴의 원형을 추론키 위해, 조선후기의 기록에 묘사된 양상을 살펴보았다.

조선후기 사족들이 명승지 유람 후 적은 遊山記와 지도 및 회화에 묘사된 바, 『新羅舍月山祇林寺事蹟』 등에 언급된 조선후기 골굴석굴의 양상을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바위산에 자연스럽게 생긴 굴을 인위적으로 평평하게 갈아 한 두 사람이 겨우 들어갈 수 있는 정도의 크기로 조성되어 있었다. 둘째, 사람이 들어가 앉을 수 있는 정도의 굴실은 12 개가 조성되어 있었다. 셋째, 12 개의 굴실 중 6 굴에는 처마와 벽, 창호가 부가되어 있었다. 넷째, 굴실 중 최소 2 곳에는 마애불이 조성되어 향과 초로 공양되고 있었다. 다섯째, 각 굴실은 각기 용도가 정해져 그에 상응하는 편액이 걸려 있었다.

이처럼 암벽을 깎고 파내고 삼면에 목조를 조성하였던 조선후기 골굴석굴의 양상은 현재와는 사뭇 달랐다. 현재 굴 전면에 부가되었던 처마와 벽·창호 등은 남아 있지 않다. 퇴락되기 쉬운 목조의 특성과 함께 다공질이어서 가공이 쉬운 응회암질의 암벽 물성도 지금과 같은 모습이 되는데 일조했을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골굴 원형 추론에 있어 함께 고려해야 할 요소이다.

The aspects of Gol-gul cave in the late Joseon Dynasty through records

Shon, sinyoung

(Senior Researcher, Korean Art History Institute)

Gyeongju Gol-gul cave is a rock-cut cave temple which is closer to the original form of a cave temple than Seoguram which is constructed by the stones. The shape of the gol-gul cave built on the cliff seems to have undergone many changes since its inception.

In this article, I examined the aspects depicted in the records of the late Joseon Dynasty in order to deduce the original form of Gol-gul cave. In other words, the aspects of Gol-gul cave in the late Joseon Dynasty mentioned in Yousangi (遊山記) which were produced by Sajok (noble man) after the sightseeing of the scenic spots, described in the maps and paintings in the late Joseon Dynasty, and stated in 『the Silla Hamwolsan Girimsa Sajuk (新羅含月山祇林寺事蹟)』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naturally occurring caves in the rocky mountains were artificially rubbed and flattened to the size for one or two people to barely enter. Second, there were twelve caves that people could sit in. Third, of the 12 caves, there were 6 caves with eaves, walls, and windows. Fourth, at least two of caves were decorated with rock-carved Buddha (磨崖佛), which are offered incense and candle. Fifth, each cave has its own purpose and the tablet corresponding to it was attached.

The shape of Gol-gul cave in the late Joseon Dynasty, which cut and dug rocks and had a wooden structure on three sides, was quite different from the present one. No eaves, walls, or windows that were present at the front of the cave remain.

The possibility that not only characteristic of wood which is easy to fall down but also the material properties of the tuff rocks, which are porous and easy to process, have played a role in forming the current shape also should be considered in speculating the original form of Gol-gul cave.

논문투고일 2018년 4월 30일 | 논문심사일 2018년 4월 30일 | 논문심사완료일 2018년 5월 4일